

#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포기할 수 없는 꿈



이경수 문학평론가 · 중앙대 교수

## 1.

엔데믹 시대로 접어들어 본격적인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서 마주한 세상은 생각보다 빠르게 달라져 있었다. 코로나 -19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기는 어려울 거라고 짐작했음에도 달라진 세상을 날마다 실감하는 중이다. 3년간 이어진 비대면 일상은 어느새 익숙해져 우리 일상을 바꿔 놓았다. 재택근무를 도입한 직장도 많아졌고 대학의 경우 학생 자치가 상당 부분 무너졌다. 물론 대면의 일상이 가져오는 피로감으로부터 얼마간 해방된 긍정적인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다. 불필요한 회식이 줄어드는 등 이른바 ‘꼰대 문화’에서 벗어난 순기능도 없지는 않지만, 직접 맞닥뜨리는 일이 줄어들다는 건 한편으로 효율성이 그만큼 중시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모든 일이 그렇듯이 함께 복닥대며 어울린다는 것은 대인관계에 따르는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하기도 하지만 더불어 함께함으로써만 경험할 수 있는 연대감과 협업의 즐거움을 깨닫게 하기도 한다. 온전히 좋기만 하거나 나쁘기만 한 경험은 사실 드물다. 나 역시 기질적으로는 혼자 있는 시간과 공간을 즐기는 사람이지만 더불어 도모하는 일의 경험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특별한 기쁨이 있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다. 무엇보다 코로나 -19로 인해 우리는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도 했고 혼자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하기도 했다.

긴 비대면의 시간을 지나 차차 일상을 회복해 가고 있지만 온전히 코로나 -19 이전으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가 회복 탄력성을 잃어 가고 있다는 생각을 떨치기 어렵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신뢰를 회복하고 대화를 풀어가야 하나 싶을 정도로 우리 사회의 대립과 갈등의 골이 깊어졌고, 알고리즘이 보여주는 각자의 세계에 안주해서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과는 상충하려 들지 않는 경향이 심해졌다. 세대 간의 갈등도, 정치적 신념의 차이로 인한 갈등도 좀처럼 해소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기회만 된다면 누구나 부동산 투기를 하면서도 그것이 투기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고, 돈

을 최우선의 가치로 생각하면서도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세상. 기후 위기가 당장의 현실이 되었음에도 미래 세대에 대한 일말의 고려 없이 아직도 성장과 개발을 추구하는 세상. 그것이 우리 사회의 민낯이다.

각자 원하는 미래가 다르고 저마다 추구하는 가치가 다른 세상이야말로 건강한 사회일 텐데 우리 사회는 점점 성공의 기준이 획일화된 각자도생의 사회가 되어 가고 있다. 모두가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오르려 기를 쓰는 사회. 한 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기 힘들다는 공포감에 사로잡힌 사회. 안전하지 않은 노동 현장으로 가진 것 없는 젊은 세대가 내몰리는 사회. 다치고 죽고 자살하는 청년 세대가 늘어가고 있지만 타인의 고통과 죽음에 점점 무감각해져 가는 사회. 피로가 누적되고 일 중독과 번아웃 상태로 스스로를 내몰게 하는 사회. 더 나은 미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현재를 영원히 저당 잡힌 사회. 불안과 혐오가 만연한 사회. 그야말로 잔혹극보다 더 잔혹한 현실이 도래했다. 어쩌다 우리 사회는 이런 모습이 되어 버렸을까? 과연 우리 사회에 희망이 있기는 한 것일까?

## 2.

‘기본소득’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느꼈던 전율을 지금도 기억한다. 성장 일변도로 달려온 우리 사회는 몸집은 빠른 시간 안에 키웠지만, 사회복지의 측면에서는 갈 길이 먼 사회였다. 제대로 된 복지라는 것을 누려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기대치도 낮았다. 그러던 어느 날 기본소득이라는 게 실현되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런 세상이 가능하다면 아니,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의지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 버린 세상이라고 비판적으로 말했지만 그런 세상에서도 여전히 돈을 추구하지 않고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이들이 없지는 않다. 최소한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더 많은 이들이 자신에게 어울리는 삶의 방식을 추구하면서 좀 더 행복하게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몰두할 수 있을 거라고 나는 아직 믿는다.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도 상황에 떠밀려 어쩔 수 없이 생활전선으로 내몰리는 일은 늘 있어 왔다. 운이 아주 나쁘지는 않아서, 또는 남다른 의지를 지니고 있어서 먼 길을 돌아서라도 꿈을 향해 다가가는 사람도 물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오늘의 한국 사회는 점점 더 개천에서 용 나는 일이 아득해지고, 꿈을 향해 노력하는 시간조차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은 아닌 사회가 되어 가고 있다. 누군가에게는 당연하게 주어지는 시간과 조건이 누군가에게는 감히 꿈꿀 수 없는 사치처럼 취급되기도 한다. 출발선이 같지 않다는 것을 어린 나이부터 알아 버린 비정한 사회가 되고 만 것이다.

청년이 꿈꿀 수 없는 사회는 희망이 없는 사회다. 어려서부터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한 시간을 보내고, 대학에 간 후에도 남들보다 더 안정적인 직장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삶. 사회에서 바라보는 성공의 기준에 맞춰 살아갈 것을 요청받는 삶. 거기에 자신에 대한 성찰이나 꿈이 깃들 자리는 없어 보인다. 행복의 기준은 저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가 지속 가능할 것 같지는 않다. 앞

만 보고 달려가는 우리 사회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는 이미 많은 문학작품에서 던진바 있지만, 광기에 사로잡힌 폭주 기관차를 멈춰 세우거나 늦추는 데는 그다지 효과가 없었던 것 같다. 실용과 효율이 지배적인 가치가 되어 버린 사회에서는 낭만도 진지함도 환영받지 못하는 법이다.

이대로 간다면 공멸은 불 보듯 뻔하다. 이 세계가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욕망을 멈추지 못하고 달려가고 있는 셈이다. 이제 남은 시간이 거의 없다고, 당장 멈춰야 할 때라고 절박하게 외쳐도 나 혼자만 망하는 게 아니라 같이 망하는 것이니 괜찮다는 식의 막무가내로 다른 가능성을 생각하려고도 들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어쩌다 우린 이 지경이 되었을까 한탄스럽기도 하지만 주저앉기에는 아직 이르다.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무엇이든 해 보려고 애쓰는 것이 인간의 소명이 아니겠는가.

기본소득이라는 꿈이 소중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지금의 한국 사회는 병들어 있다. 모두가 아픈데 다들 아프니 아픈 줄도 모르고 늘 해오던 대로 자신을 닦달하고 주변인들을 닦달하고 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이 디폴트 값이라 많은 이들이 자기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세상은 점점 더 나빠지는 방향으로 향해가고 있다. 자기 성찰과 우리 사회에 대한 성찰을 통해 다른 가능성을 꿈꾸던 시절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나 그리 오래가지는 못했다. 공존과 공생이라는 가치 대신에 일단 나만이라도 살고 보겠다는 이기적인 생각이 우세한 세상이 되어버린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성장과 경쟁을 중시하는 가치가 우리 시대의 교육은 물론 사회 전반을 지배해 버린 것이다.

오래전에 우리 사회 전체가 연예계처럼 변해 버렸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난립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은 사실상 우리 사회의 축소판과 다르지 않다. 목숨 걸고 경쟁하고 그 결과 한 사람의 스타를 만들고 빠르게 소비하고 다른 별로 그 자리를 대체하고……. 좀처럼 멈추지 않을 것 같은 악순환이 지금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다. 학계나 문단도 그다지 달라 보이지는 않는다. 시스템의 문제이다 보니 한두 사람의 저항으로 바꾸기도 쉽지 않다. 그런 움직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시스템을 돌리기에는 아직은 역부족인 것처럼 보인다. 방향을 돌리거나 멈추는 것이 불가능해 보여서 허탈감에 사로잡히거나 쓸쓸하게 돌아서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기성세대는 기성세대대로, 청년 세대는 청년 세대대로 불만 가득한 얼굴로 원망을 쏟아부을 대상을 찾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혐오의 정동이 이토록 서로를 잡아먹다 못해 사회 전체를 쪼먹는 경험은 우리 모두에게 낯설다. 모두 각자의 지옥에 감금당해 공멸할 생각이 아니라면 뚫고 나갈 수 있는 길을 더 늦기 전에 모색해야 한다. 세상이 멸망해 버리면 혼자 살아남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제발 사랑하는 대상을 단 하나라도 떠올려 보자. 가족이나 연인, 친구, 자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반려묘나 반려견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대상을 조금씩 넓혀 간다면 사실상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들이다. 우리가, 더 나아가 그들이 조금 더 나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더 늦기 전에 모색해야 하지 않겠는가?

불과 얼마 전까지 우리는 3년 가까이 마스크를 쓰고 거리 두기를 하며 살아왔다. 지금도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그때 목격하지 않았던가? 인간이 멈추자 자연이 되살아나는 모습을 말이다. 이미 우리는 답을 알고 있다. 우리들 각자는 물론이고 인간과 자연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이다.

공멸하는 지구에서 혼자 살아남을 방법은 없다. 공멸이 아닌 공존과 공생을 위해서는 욕망을 멈추고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길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기본소득은 단지 허황된 꿈이 아니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그것이 실현 가능한 꿈을 단계적으로 제시하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볼 수 있다.

‘개천에서 용 난다’라는 속담이 사라져 버린 오늘의 한국 사회는 줄 세우기 문화가 지배하고 있다. 땀 흘려 버는 돈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불로소득을 취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회가 되어 버렸다. 지난주에 방영된 드라마 <악귀>에서 김은희 작가는 눈이 벌게진 채 남의 것을 탐하다 몰락하는 ‘아귀’들을 돈에 썩어 버린 우리 사회의 병든 모습을 보여주는 강렬한 알레고리로 등장시켰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논리로 점점 수치심을 모르는 사회가 되어 가는 것이 무서운 이유는 노회한 기성 세대의 삶의 방식을 우리의 아이들과 청년 세대가 배워 가고 있기 때문이다. 기후 위기를 악화시켜 미래 세대가 살아갈 삶의 터전과 기회를 빼앗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반성할 줄 모른다는 사실도 섬뜩하긴 매한가지다.

2014년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일찍이 송경동 시인은 이렇게 경고했다. “우리 모두가 세월호였다”고. “사회의 모든 곳에서 ‘안전’의 자리를 덜어내고/ 그곳에 ‘무한이윤’이라는 탐욕을 채워넣”은 것이 바로 우리들이었다고 말이다. 지금이라도 우리 사회의 시스템을 바꾸고 “자본의 항로를 바꾸”(「우리 모두가 세월호였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시인이 아프게 말했듯이 앞만 보고 달려온 우리가 만든 세상이 결국 우리 아이들과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셈이다. 모두가 눈물 흘리며 슬퍼했고 세상을 바꿔야 한다는 데 공감하기도 했지만 세상을 바꾸는 데는 실패했다. 역부족이었다.

### 3.

그러나 아직은 더 나은 세상을 향한 희망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다. 오늘의 우리 사회를 만든 경제적 불평등과 그로 인한 각종 혐오와 증오의 정동들을 해소할 수 있는 한 가닥 희망을 기본소득의 실현이 만들어갈 다른 세상에 걸고 싶다. 그렇다. 나는 낭만주의자이자 이상주의자이다. 세상을 바꾸고 싶다는 열망은 가지고 있지만 실천력은 떨어지는 문학하는 인간이다. 여전히 꿈꾸기를 포기하지 못하고 이런 시대에 시를 읽고 가르치며 시를 읽는 일이 조금은 더 세상을 낭만적으로 바꿀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다.

기본소득의 로드맵을 오랫동안 그려오고 연구해 온 분들은 다행히 낭만주의자이자 이상주의자이긴 한 것 같지는 않다. 우리 사회를 선한 방향으로 바꿀 의지를 가지고 있고 더 나은 세상을 향한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기본소득의 재원을 어떤 방식으로 마련하고 어떤 단계를 거쳐 실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여러 분야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면서 기본소득 로드맵을 차근 차근 마련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유부에 대한 개념 정립, 중산층의 정치적 저항을 줄일 방법에 대한 현실적 모색 등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이상에 설득력을 부여해 준다.

사실상 우리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어 보인다. 더 망가지기 전에, 모두 아귀에 씌거나 악귀에 씌어 돌이킬 수 없게 되어 버리기 전에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그것은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일이자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일이기도 할 것이다. 더 망가지기 전에 우리 자신을 돌보는 일이자 숨 쉬고 살아갈 수 있는 지구를 미래의 우리에게 남겨주는 일이다. 혐오와 증오와 원한의 정동에서 벗어나 사랑의 씨앗을 뿌리고 공존과 공생을 꿈꾸는 한 걸음을 내디뎌 보자.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누리는 삶을 모두가 바라는 것은 아니다. 최소한의 삶이 보장된다면 하고 싶은 일에 몰두하며 소박한 행복을 누리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다. 저마다 다른 삶을 꿈꾸며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일궈 가는 세상을 그려 본다. 기본소득이 실현된다면 그런 세상이 현실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더 많이 가지려고 기를 쓰며 아귀다툼을 벌이지 않고 가진 것을 나눌 줄 알고 베풀 줄 아는 넉넉한 마음을 회복할 가능성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 있을 수도 있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제할 가능성을 기본소득을 통해 찾고 싶다. 이제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